



조석구 / 본회 비상근 이사
(주)인켈 사장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금년초 정부는 지난 '89년이래 침체의 늪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전자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반전, 11.1%의 두자리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던것과는 달리 금년에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후유증으로 국내 물가불안, 증시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저임금과 대량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한 Low Cost 제품의 수출전략은 국제무대에서 많은 통상마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정책강화, EC로 부터의 제재, 유통시장의 개방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전자업계, 특히 가전부문을 외국산 제품들과 본격적

인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또는 기술 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종전의 노동집약 체제를 지양하고 전자 부품 고집적화, 자동화 체제 구축 등을 통한 근본적 구조전환이 우리나라 기술산업 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제 경쟁력이 뒷걸음질 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와같은 기술력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또한 인재양성 즉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경영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살 각기식의 경쟁을 피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자국 산업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를 젊어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수입 규모 및 내용까지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야 하며, 이미 처해진 상황에 대해 방관 및 흥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세가지 요소를 간추려 보면

첫째, 각 기업체들은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수 있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의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국제화, 전문화 되어가는 기업환경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육성,

셋째,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형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향 마케팅 등에 주력,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